

검찰 '입법 로비' 강제구인...민주당 격앙

# “정치검찰과 끝까지 맞서 싸우자”

## 최고위·의총, 검·정권과 전면전 선포 예산심사 거부...형소법 개정안 발의도

민주당은 17일 검찰이 전남 청원경찰 입법로비 의혹 수사와 관련, 자당 소속 강기정 의원 및 최규식 의원 측 관계자 3명을 체포한 데 대해 '야당에 대한 폭거'로 규정, 예산심사를 거부하고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 문제에 대한 추가 의혹을 폭로하는 등 초강경 대응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전날 밤 체포 소식이 전해진 직후 '국회 유린 대책위' 회의를 소집한 데 이어 이날 예정된 당 지도부의 경북 상주의 상주보 건설 현장 방문 일정 전면 취소하는 대신 긴급 최고위원회의와 두 차례의 의원총회를 잇따라 열어 대응책을 논의하는 등 긴박하게 움직였다.

손 대표는 의총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검찰의 권력으로 죽일 때 그의 손은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손이 됐다"면서 "저들의

비열함을 용서하지 말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이제 민주당은 검찰 조직을 정치권력에 팔아넘긴 소수의 정치검찰과 싸워야 한다. 독재의 길로 들어서서 이명박 대통령과 그 형제들, 한 줌의 정치세력들과 맞서 싸울 수 없다"면서 검찰과 현 정 정부에 전면전을 선포한 뒤 "도대체 이 정권의 영부인이 무슨 일을 하고 다녔는지 물어봐야겠다. 누가 국민의 검찰을 정권에 팔아넘기는 가릇 유대인지 밝혀내야 하겠다"며 김윤옥 여사를 겨냥했다.

박주선 최고위원은 "야당을 죽이려만 강그리 다 죽이라는 차원에서 민주당 의원 87명 전원에게 대한 수사를 촉구하고 예산안에 대한 강경투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열린 예결특위 종합정책 회의에서도 민주당은 이석현 의원을

통해 '민간인 사찰과 관련, 청와대가 사찰 보고를 받은 사실을 알고서도 검찰이 민정수석을 조사하지 않았다'며 은폐 의혹을 제기하는 등 검찰을 향해 공세를 강화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올해 9월 서울중앙지검 수사2과의 요청에 따라 대검 디지털수사관실이 폐기된 자료를 완전히 분석한 13쪽짜리 분석 보고서 5쪽에 따르면, 김중희씨에 대한 사찰 보고서가 2008년 9월27일과 10월1일에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보고된 것으로 나왔다"며 "검찰은 이를 알고서도 민정수석을 조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이창화 당시 청와대 행정관이 김성호 당시 국정원장,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의 부인, 정태근 의원의 부인이 운영하는 이즈비엔피, 민주당 정세균 최고위원 등에 대한 불법 사찰도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또 이날 검찰과 경찰 수사권 분리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

다. 문학적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경찰에게 수사개시·진행권은 물론 기소가 불필요한 사건에 대한 종결권을 부여하고 검사의 직접 수사권과 지휘권은 폐지하도록 하고 있다. 이날 검경 수사 분리법을 국회에 제출한 것은 검찰의 청탁회 입법로비 수사에 대해 검찰개혁으로 맞불을 놓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민주당이 강하게 반응하는 것은 검찰이 이번 체포수사를 필두로 보고서 5쪽에 따르면, 김중희씨에 대한 사찰 보고서가 2008년 9월27일과 10월1일에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보고된 것으로 나왔다"며 "검찰은 이를 알고서도 민정수석을 조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이창화 당시 청와대 행정관이 김성호 당시 국정원장,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의 부인, 정태근 의원의 부인이 운영하는 이즈비엔피, 민주당 정세균 최고위원 등에 대한 불법 사찰도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또 이날 검찰과 경찰 수사권 분리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

# 김준규식 공수 양동작전

## 입법로비 관련 민주당 관계자 전원 강제구인 특임검사 임명 '그랜저 검사' 전면 재수사 지시

16일 오후 검찰의 두 가지 행보가 국민의 시선을 확 끌었다. 하나는 정치권 등으로부터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과 공격을 받아온 '그랜저 검사' 의혹사건에 대해 김준규 검찰총장이 사실상 전면 재수사를 지시한 것이었다. 김 총장은 재수사를 맡을 특임검사로 '특수통'인 강찬우 검사를 임명하고 수사팀을 꾸려 의혹 전방위적 사건의 갈날을 휘두르며 대대적인 야당 죽이기에 나설 것이라는 인식이 깔려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민주당 광주시당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어제 자행된 검찰의 강기정 의원 지역 사무국장 긴급체포 행위는 명백한 야당 탄압이자 강압적인 과잉수사로 규정하고 강력한 항의와 함께 끝까지 맞서 싸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당 일각에서는 예산 심의에 대한 전면거부에 나설 경우 역풍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어 민주당 지도부의 최종 결정이 주목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김 총장은 취임 직후 새로운 수사 패러다임과 불합리한 인사관행의 혁신을 천명했으나 뒤이어 터진 '스폰서 검사' 파문과 '민간인 불법사찰' 부실수사 논란, '그랜저 검사' 의혹 등으로 검찰의 신뢰위가 이어지면서 1년 이상 제대로 된 사정을 할 수 없었다.

이런 가운데 김 총장이 내놓은 해법은 "검찰은 수사로 말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대검 중수부와 서울중앙지검 등 일선 검찰은 청원경찰 입법로비 의혹을 비롯해 C&, 한화, 태광그룹 비리 의혹 등을 잇따라 제기 시작하면서 사정수사의 포문을 열었다.

하지만 검찰이 이 같은 뜻과 의지를 성공적으로 관철할 수 있을지 현재로서는 낙관하기 쉽지 않다. 정치권을 겨냥한 수사 자체에 적지 않은 어려움이 예상되는 데다 '대포폰 의혹'이라는 검찰의 약재가 시한폭탄으로 남아있다.

대포폰 의혹과 관련해 검찰은 새로운 증거가 나오지 않는 이상 재수사는 불가라는 입장을 고수하지만 국정조사와 특검수사까지 요구하는 정치권의 압박이 검찰엔 최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연철뉴스



1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무언가를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 檢-野 대치...예산국회 파행

## 검찰총장 출석 요구...예결위 2시간만에 정회

민주당은 17일 검찰의 청탁회 수사와 관련, 자당 국회의원의 측 관계자들을 긴급체포한 데 반발, 이날 예정된 국회 예산결산특위 및 상임위법 예산심사를 거부하면서 예산국회 운영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전현희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 브리핑에서 "오늘 진행하는 상임위는 참석하지 않고 예결위만 진행, 이석현 의원이 대포폰 게이트와 현안에 대해 질의하고 이후 퇴장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날 예정된 법사·지경·환노위 전체회의가 열리지 못했고 상임위법 법안 및 예산심사 소위도 진행되지 못했다. 때문에 헌법상 시한인 다음달 2일뿐만 아니라 정기국회 중

료일인 12월9일까지 예산 및 각종 법안 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예결특위의 경우 민주당 측 의원들이 오후 전체 회의에 참석해 열렸으나 민주당 이석현 의원이 '대포폰 논란' 및 민간인 사찰 문제에 대한 추가 의혹을 폭로하고 검찰총장의 예결위 출석을 요구한 데 이어 같은 당 조영택·서갑원 의원 등이 검찰 수사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한나라당 권성동 의원 등도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반박하는 등 여야 간 격돌이 이어지자 여야 간사 합의에 의해 2시간 만에 정회를 선언, 예산 심의는 하지 못했다.

이날 회의에서 조 의원은 "최근 현실은 민주주의의 체제 자체를 위협하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 문제

를 정리하고 넘어가야 효율적인 예산 심의가 이뤄질 수 있다"며 "정치자금에 대한 수사, 그것도 불법수사를 하면서 국회의원의 직무활동이라 할 수 있는 입법활동에 대해서는 알선이나 정략이나 하는 혐의를 둘러싸우는 등 입법권에 대한 심대한 도전과 탄압이 자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청와대의 민간인 불법사찰 등에 대해서는 시종일관 봐주기식 축소·은폐 수사를 하는 검찰이 유독 야당 국회의원들에게만 사정의 칼을 휘두르고 있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반면 권 의원은 "이 의원이 면책특권 뒤에 숨어 아무런 근거도 자료도 없이 대통령실이 직접 사찰을 했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있다"며 "검찰 총장 출석을 방자해 예결위를 파행으로 몰고간선 안 된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여야 '소액 후원금' 제한 완화 추진 법안·단체도 기부 허용

여야가 최근 검찰의 청탁회 입법로비 의혹 수사의 대상이 된 '10만원 이하 소액 후원금'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한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법인과 단체의 정치 후원금 기부를 금지하고 있는 현행 정치자금법이 현실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보고

조만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개정 방향은 법인이나 단체라도 1회 10만원 이하, 연간 120만원 이하의 정치 후원금은 낼 수 있도록 하고 1회 10만원 이하의 소액일 경우 기부목적과 대가성을 따지지 않는 쪽으로 논

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 이균현 원내 수석부대표는 17일 "일단 고쳐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고, 민주당 조영택 원내대변인은 "현실과 법이 충돌하고 있는 만큼 문제점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행안위에서 논의해보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삼성화재 anycar

## 정직한 정비문화 정착 애니카 패밀리센터가 앞장서겠습니다!

삼성화재, 애니카 패밀리센터 윤리경영 실천 결의대회 (2010.10)

### 애니카 패밀리센터의 차별화된 서비스

**첫째.** 정직한 수리비를 청구합니다.  
**둘째.** 예약정비로 시간을 절약해 드립니다.  
**세째.** 수리전에 견적서를 제공해 드립니다.

- 정비사후 관리기간을 1년으로 연장보증
- 요청하신 장소에서 최대 20km까지 무료로 견인
- 휴일시간 사고차량을 평일과 같이 수리
- 차량 인도전 내외부 정리정돈 및 세차
- 수리요청시 최대 10km Door to Door 서비스
- 정기검사 무료 대행 서비스 최대 20km 이내

업체명	주 소	전 화	업체명	주 소	전 화
삼진공업사	전남 목포시 연산동	061 278 7103	동아자동차종합 정비공업사	전남 여수시 미평동	061 654 0001
(유)한솔공업사	전남 목포시 옥암동	061 283 8777	무안자동차공업사	전남 무안군 무안읍	061 453 7600
보림공업사	전남 장흥군 장흥읍	061 863 6776	선진자동차공업사	전남 목포시 연산동	061 272 2900
금당자동차공업사	전남 순천시 조례동	061 724 0011	신제일공업사	전남 고흥군 고흥읍	061 835 8233
삼림공업사	전남 순천시 덕암동	061 743 0284	신흥정비공업사	전남 보성군 벌교읍	061 857 7286
일산공업사	전남 순천시 생목동	061 743 1414	엑스포정비서비스	전남 여수시 월하동	061 691 7114
(유)제일종합자동차 정비공업사	전남 해남군 해남읍	061 536 5825	완성공업사	전남 목포시 석현동	061 284 4711
우양	전남 담양군 봉산면	061 382 0022	우리자동차정비	전남 구례군 구례읍	061 781 8855
성황공업사	전남 광양시 성황동	061 791 4998	제일공업사	전남 함평군 함평읍	061 324 0271
신광자동차공업사	전남 여수시 만흥동	061 651 8612	제일공업사	전남 진도군 진도읍	061 543 7574
여수자동차공업사	전남 여수시 미평동	061 653 1115	제일자동차정비공업사	전남 광양시 광양읍	061 762 6807
동성자동차공업사	전남 여수시 연동동	061 663 2222	현대자동차공업사	전남 담양군 담양읍	061 383 8088
대성자동차1급정비공업	전남 강진군 강진읍	061 433 4310	대원자동차공업사	제주 제주시 한림읍	064 796 5111
나주청동자동차공업사	전남 나주시 청동	061 334 1888	한일공업	제주 제주시 화북1동	064 755 8111
영광자동차정비공업사	전남 영광군 영광읍	061 351 0990	제성공업사	제주 제주시 화북1동	064 755 1100
부영선진자동차공업	전남 여수시 국동	061 643 3000	건영공업사	제주 제주시 삼도2동	064 751 7282
(주)대원기업	전남 광양시 태인동	061 792 6004	성산공업사	제주 남제주군 성산읍	064 784 2580
기남자동차공업사	전남 완도군 완도읍	061 554 4111	신안자동차공업사	제주 서귀포시 토평동	064 767 9100
광명공업사	전남 장성군 황룡면	061 393 3351	신제주자동차공업사	제주 제주시 노형동	064 746 8800
광일자동차서비스	전남 목포시 연산동	061 279 0114	조흥자동차공업사	제주 제주시 화북1동	064 722 2581
동성자동차공업사	전남 목포시 옥암동	061 281 4949	흥진공업사	제주 서귀포시 남원읍	064 764 6700

※애니카 패밀리센터란? 전국 4,900여개의 1, 2급 정비업체 중 경영환경, 수리기술, 서비스 품질을 삼성화재가 평가하여 가장 우수한 업체를 선정하여 상호 상생경영을 통한 가치중대로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업체를 말합니다.

